2017.11.19. 참사랑교회 주일낮예배 메시지

감사 언약 전달

시편 75:1-10, 고린도후서 9:10-15

최정웅 목사님

전도자가 쓴 시를 한 수 소개한다.

참 감사합니다

휘몰아치는 바람, 거센 물결
풍랑 속에 죽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내 곁에 함께 계시니
주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
꼼짝없이 망할 줄 알았는데
지팡이 막대기 안위하시니
주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손발 묶여 던져진 로마 감옥
아무 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예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전도자 나명기 목사님이 6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였다. 필리핀 선교를 부지런히 다니고, 또 중고등부 사역을 열심히 하더니, 필리핀 바기오 사역을 갔다가 쓰러졌다. 중풍을 만나서, 이분 친구 최 목사님은 지금도 불구로 있고, 이분은 그래도 회생이 되셔서 한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마침내 60세를 일기로 하나님 앞에 가셨다. 그 전에 그가 쓴 글들을 모아서, 친구들이 책을 만들었다. 거기에서 이 시를 뽑아서 소개해 드린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도 대단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한국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다. 살펴보면, 개인도 사회도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대부분 이 부분을 놓치고 불평과 원망에 깊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헬조선이라 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민족을 비하하기에 바쁘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개인과 사회는 병들게 되어 있다. 특히 후대의 영적 상태가 병들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자꾸만 감사를 놓치고 광야에서 계속 불평, 불만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면 더욱 더 원망을 계속 했다. 하나님은 복음을 받은 우리가 현장과 시대를 두고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들을 은사로 받았다.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개인과 교회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주일,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란다. 올해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한 해로 말씀을 붙잡고 있다. 특별히 감사의 언약을 전달함으로,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생명 살리는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하루,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다.

1. 후대에게 전달할 감사의 이유

먼저 생각할 것은, 후대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달하는 것이다. 찬송가 23장에 보면, 찰스 웨슬레가 지은 가사가 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 찰스 웨슬레는 요한 웨슬레의 동생이다. 입이 만 개 있으면 그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오늘 찾았으면 좋겠다.

(1)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행복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죄로 인한 저주에 빠져 있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1의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문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에베소서 2:2에 보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종 노릇을 하면서 세상 풍속을 따르는 현재 문제에 빠져 있었다. 에베소서 2:3에 나와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도록 미래 문제에 잡혀 있었던 것이다.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적으로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다. 종교의 열심으로 안 되고, 선행으로 지식으로도 안 된다. 우리는 이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이런 멸망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한없이 감사해야 할 최고의 이유다. 요한일서 4:10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 5:8은 말씀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사랑 때문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내 버리셨다. 요한복음 19:30에, 다 이루셨다고 했다. 죄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 모든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이다. 이것이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다.

(2) 그 뿐만이 아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해답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성령으로 내주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주신다.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게 하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으며, 세계복음화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 불신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영적인 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어제 세례문답을 하면서 세례 받을 두 젊은이에게 이야기했다. 대답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거기에 눌리고, 세상 나가서 안 되니까 거기에 또 눌릴 것 같이 보였다. 그래서 이야기했다. "아니다.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면 된다. 그 사람들의 비위에 맞추고, 요구를 따르고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아, 저게 진짜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저게 진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구나 하고, 그들이 너희를 따라올 수 있는 삶을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라. 쩔쩔매면서 왕따 되지 마라." 술 마시지 않는다고 괴롭히면 어떻게 하나? 나는 그럴 때 당당히 말했다. 아니다, 콜라 없느냐, 사이다 없느냐 해서 그것을 가지고 부어 마셨다. 당당히 '나는 크리스천이다' 했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군 시절에 장교로 있었는데, 상사가 술을 억지로 입에 부으니까 그것을 못 견디고 상사를 주먹으로 패 버렸다. 이렇게 해서 대령에게 불려가게 되었다.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더니, 화낼 줄 알았는데 웃으면서 말하더라는 것이다. "당신은 진짜구만." 진짜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꿀리지 말고, 왕따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기 바란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다. 내 힘이 아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상대방을, 그의 악한 마음을 꺾어 버리신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신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감옥 문을 열었던 천사를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신다. 우리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3) 삶의 방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삶의 목표도 우리에게 주셨다. 사도행전 1:8에, 성령충만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세계복음화를 우리 인생에 영원한 목표로 주신 것이다. 나는 뭘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은 불신자의 인생이다. 우리는 분명히 세계 살려야 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공부를 세계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기 위해 하라. 돈을 벌 때 직장 살리고 세계 살리기 위해서 하라. 그 일에 얽매여서 쩔쩔매지 마라. 힘이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상은 악하고 저는 힘이 없사오니, 지금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충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남 속일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우리는 목표가 있는 인생이다. 성공한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다. 성공해야 할 이유와 목표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다. 이것을 두고 날마다 응답받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다. 응답 받아가면서 살아라. 말씀의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4) 이런 이유와 목표를 가진 우리를, 복음 공동체로 불러 주셨지 않은가. 이 사실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팀이 되어서 50년 동안 인도받아 왔지 않은가. 복음운동하는 교회로 부름을 받고, 전도운동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셨지 않나. 50년 동안 지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며 살게 해 주셨지 않나. 이 모든 감사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최고의 감사 이유를 우리 모두가 감격 속에서 회복하시기를 축복한다. 누리면서 살면서, 후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 후대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전달

해 주라는 것이다. 우리가 명쾌하게 답을 가지고, 명쾌한 이유를 가지고, 명쾌한 목표 속에서 살아가면, 그것을 자녀들이 보게 되어 있다. 늘 방황하며 이래야 할지, 저래야 할지 벌벌 떨며 살아가는 모습을 본 자녀는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늘 불평, 불만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녀도 똑같이 살아가더라. 희한하다. 그래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이번 주에는 감사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자는 것이다. 정말 생각하면 만 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지 않나.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감사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라. 불만 그만 하고, 감사한 일을 찾아보라. 계속 감사를 찾아보라. 엄마에 대한 감사, 아빠에 대한 감사,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자식에 대한, 형제에 대한 감사를 찾아보라. 웃음꽃이 필 것이다. 친구를 만나도, '당신 만나서 행복했다. 유언이 아니다. (웃음) 앞으로도 그렇게 살자. 우리가 서로를 알기 때문에, 당신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함께 길을 가면 그것만으로 안심이 되고 행복하다.' 그런 감사를 마음껏 나누며 포럼하는 한 주를 살자. 그래서 연말을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바란다.

2. 후대에게 전달할 성경적 감사의 방법

이런 감사의 이유를 찾았으면, 이 이유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를 회복할 것인가? 우리는 후대에게 성경적 감사의 방법을 전달해줄 필요가 있다. 수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몇 가지 감사 방법을 찾아서 나누려고 한다.

(1) 첫 번째다. 말로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 한다. 요즘 청년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 사랑 못 하게 된다. 감사한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참 인색하다. 일본 사람들은 무슨 말만 하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한다.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라. 미국 사람들도 계속 땡큐 땡큐 하면서 고맙다고 한다. 우리는 여간해서는 안 한다. 그러니까 사회가 경직된다. 말로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 안 한다고 누가 모르나 하는데, 말 안 하면 모른다. (웃음)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표정 보면 모르냐 하는데, 모른다. (웃음) 말을 해야 한다. 말하자. "오늘 아침이 왜 이렇게 맛있어. 고마워. 오늘 밥은 전보다 더 맛있네." 감사하는 표시를 자꾸 하면 가정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나도 잘 못 한다. 그래서 이제 연습해 보려고 한다. 민수기 14:28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불신앙의 말을 한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시켰다고 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믿음의 말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셨을 것이다.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을 믿음의 말로 바꾸어야 되겠다. 성경은 그것을 전부 감사의 말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다. 시편 26:7에 보니까, 다윗이 모든 제단을 돌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겠다고 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기이한 구원의 은혜를 말로 표현하면서 감사한다는 것이다. 골로새서 3:17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말을 감사로 바꾸는 한 주간 되라는 것이다. 감사하는 삶을 살라. 이것을 후대에게 꼭 전달해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축복한다. 아이들은 본 대로 하기 때문이다.

(2) 참된 예배로 감사해야 한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시편 50:23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했다. 시편 138:2에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라." 요나 2:9에 보니까,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후대에게 전달하게 되기를 정말로 부탁드린다. 지금 우리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전부 보고 있다. 그대로 따라한다. 갔다 안 갔다 하면 아이들도 그것을 본받는다. 여지없이 가면 그것을 아이들이 따라한다. 록펠러가 여섯 살 때, 그 전까지는 늘 엄마와 같이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 날은 혼자 가라고 했다. 돈을 20센트를 주면서 이것을 용돈으로 가지고 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10분의 1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다. 하나님의 것이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 알겠니?" 이렇게 해서 시작된 십일조를 92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빠짐없이 실천했다. 39년 동안 세계 1위의 부자였다. 그의 십일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43명이었다. 교회를 4973개를 세웠다. 그가 세운 리버사이드 교회를 가 봤는데 너무 잘 세웠다. 수리하고 재건축할 것까지 보험으로 다 들어놓았다. 영원한 교회를 세운 셈이다. 뉴욕 사람들은 전부 물을 공짜로 먹도록 수도세를 다 내 놓았다. 대학교 24개를 지었다. 엄마가 가르쳐준 것을 지켰기 때문이다. "교회 가거든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꼭 십일조를 해라, 절대 목사님과 부딪히지 마라, 교회가 시키는 일은 이유를 묻지 말고 순종해라." 이 네 가지를 끝가지 지켰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다. 히브리서 11:6의 말씀이다. 안 믿으면 교회 나와도 소용이 없다. 정말 믿는다면 순종해 보라.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 보라. 조그마한 데서 시작해 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결단해 보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신다.

(3) 그 중에서도 언약의 예물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다. 고린도후서 9:11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의 헌금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방법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13절에,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면, 모든 것을 드리는 중심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감사가 충만하다면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시편 116:12의 마음으로, 후대에게 헌금에 대한, 드림에 대한 규례를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 언약을 전달해 주자는 것이다. 유튜브에 보니까 십일조 할 필요 없다고 강조하는 목사가 있더라.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사람 귀에 듣기 좋게 하면 안 된다.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주어야 한다. 나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은 내 삶을 전부 책임져 주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운영비가 모자라서 사례를 드리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도록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는 급여를 받으면 십일조부터 뗀다. 나머지를 가지고 쓴다. 십일조는 목표가 아니다. 첫 열매 예물은 목표가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셨다. 그게 이스라엘이 증거하는 증언이다. 지금 세계 경제를 그들이 쥐고 있지 않나. 그들은 여지없이 그것을 드린다. 여러분, 드림의 신학을 제대로 배우시기 바란다. 내가 이번에 가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부자가 된 사람 일곱 명이라는 책이 있어서 가지고 간다. 어떻게 했기에 그들이 그렇게 부요해졌는가,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사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보려고 한다. 내가 하기 전에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서 해 놓아 보라. 진짜 하나님 앞에 서 보라. 여러분이 잘 되어야 나도 국물이 있지 않나. (웃음) 이것은 진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계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4) 마지막 방법이 전도자의 삶이다. 12절에 뭐라고 했는가?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게 된다'고 했다.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 감사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이것을 위해 복종하고 봉사하는 감사의 열매를 맺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평생을 살면 하나님이 평생을 책임지신다.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한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쁜 게 너무 많다. 다른 것 보지 말고, <왕의 재정>, 그런 것을 보라.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주인이라고 한다. 자기가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다 주시더라고 했다. 놀라운 간증과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성도들이 그것부터 봐야 한다. 정말 축복이 여기 있구나, 승리하는 방법이 이것이구나 하고 배워야 한다. 악마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마라. 저것 따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말을 듣지 마라.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감사 회복을 미션으로 붙잡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한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면, 그때부터 복음의 말씀이 들려진다. 집중의 능력이 회복된다. 이때부터 치유가 일어난다. 미래까지 보이게 된다. 우리가 말하는 다섯 가지 기도 제목 아닌가. 이 기도가 감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 집중, 치유,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감사를 회복하도록, 이번 주에 감사의 포럼을 회복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한다. 이 감사를 누리는 바른 기도를,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서 실천하라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다. 실천해 보라. 후대와 함께 감사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다시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한 주간 누리고, 그렇게 하다가 또 모여서 포럼을 나누게 되기를 바란다. 감사가 폭발하는, 감사를 나누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하며, 목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법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름대로 감사를 회복하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산업과 직장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참사랑 교회가 감사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